

“구인광고 보고 전화...” “나이가...”

노인문제 해결방안 주제 은평복지관 사회극 공연

“여보세요, 구인광고 보고 전화 했는데요. 네? 나이요? 일흔 살인 데요. 안 된다고요? 저 아직 건강해서 일할 수 있어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휴...”

체념 섞인 한숨을 내쉬는 안태현(72) 할아버지의 실감나는 연기에 오늘날 노인들의 현실이 고스란히 묻어났다.

8일 시립은평노인종합복지관(관장 고재욱) 강당. 노인문제의 심각성과 해결방안을 노인들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이색적인 자리가 마련됐다. ‘오늘날 그리고 미래의 노인문제 그 해결 방안은’이란 주제로 열린 사회극 공연. 60~70대 할아버지, 할머니가 직접 배우로 나섰다.

총 5막으로 구성된 이번 연극은 우리사회의 7% 이상을 차지하는 노인들의 무기력함과 부양비의 변화 등 전반적인 노인문제를 다뤘다. 특히 무기력한 노인들을 외면하고 있는 사회를 묘사하는데 중점을 뒀다.

막이 열리자 초라한 행색의 할머니(진분순·71)와 등산모를 꼭 눌러 쓴 할아버지(이재·73)가 무대 중앙에 자리 잡는다. 할머

냉담한 사회현실 생동감 넘치게 표현 60~70대 할아버지·할머니가 배우로

니는 애처롭게 돈을 구걸하기 시작하고 할아버지는 바닥의 담배꽂이를 주워 핀다.

그때도 이들은 나은 편. 뒤이어 등장한 두 노인(전복주·70, 이학원·68)은 지방어를 짚고 허리조차 펼 수 없다. 간신히 걸음을 떼며 구걸하는 이들을 냉정하게 지나치는 젊은이는 우리사회 노인문제의 현주소를 반영하고 있다.

2막에서는 부양의식의 변화를 조명했다. 명절날 아침 노부부(안태현·72, 김정숙·69)는 한복을 곁에 차려입고 자식들을 밝은 얼굴로 맞지만, 아들과 며느리는 냉랭하기만 하다. 오히려 통명스럽게 핑계 대며 자리를 피하려고만 하는 아들네의.

떠나는 이들을 바라보며 할머니는 “어휴, 내 저 녀석을 어떻게 키웠는데...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그 맘도 플라주고. 돈 없으니 이제는 찾지도 않겠지.” 울먹이는 목소

리로 신세를 한탄한다. 관객들도 자신의 넋두리인 양 고개를 끄덕이며 이내 눈시울을

붉힌다.

반응은 좋았다. 연극을 관람한 윤석선(72) 할머니는 “노인차대 문제에 대해 사회가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이 가슴 아프고 마음이 무겁다”며 치매노인 보호·치료시설의 설립이 시급함을 토로했다.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사회극 공연에 나선 어른신 배우들. 현대사회 노인문제를 자신들의 목소리로 풀어내고 있다.

대불련 창립 40돌...총동문 대회

8월9~10일 속리산 법주사서 산사음악회·심포지엄 등 계획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창립 40주년 기념 전국 총동문대회가 8월 9~10일 속리산 법주사에서 열린다. 대불련 총동문회(회장 성기태, 총주대 총장)는 2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대불련 창립 40주년을 맞아 전국의 동문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총동문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번 총동문대회에서는 ‘한국불교와 인류의 보편윤리’에 대한 심포

지엄, 산사음악회, 쏫불한마음 대동제 등의 행사가 펼쳐진다.

특히 김규철 불교방송 사장의 사회로 열리는 이날 심포지엄은 송석구 동국대 전 총장이 주제발표, 박세일 전 서울대 교수, 성태웅 건국대 교수, 김복순 동국대 교수 등의 토론으로 진행된다. 참가신청은 8월8일까지 대불련 총동문회 홈페이지(www.daebul.or.kr). 김철우기자

조계종 불교위원회(위원장 성광, www.gunbulkyo.org)가 계간 불교 창간호를 냈다. 위원장 성광님은 발간사를 통해 “군불당의 운영통일방안과 원활한 정보공유를 위해 계간 불교 창간호를 준비하게 됐다”며 “군포교라는 큰 배의 방향과 비전을 밝힐 것”을 약속했다. 포교위원장

도영수님도 “군불교”는 포교의 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군승들의 소식과 경험을 군승들뿐만 아니라 교계 내외에서 공유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축하를 했다. 계간 불교는 군사철 탐방, 예비역 법사와의 만남, 포교 현장을 찾아서, 군불교 소식란 등으로 꾸며졌다. 남동우 기자

김태복장군사건 새국면에

박대령 고발·‘증거·증인’ 배척 “불공정 재판”

김태복 장군 사건이 새 국면에 접어들게 됐다.

김태복 장군 명예회복 불교대책위원회(공동집행위원장 미산, 일관, 정산스님은 9일 조계종 포교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법당 시주금을 뇌물로 둔갑시킨 군검찰의 기소로 진행된 재판에서 김 장군의 무죄를 입증할 증거와 증인들이 합리적 이유 없이 배척당하고 심증만으로 유죄를 인정했다”며 불공정한 재판의 재조사를 촉구했다.

대책위는 또 3일 국방부 정문에서

태허스님의 피켓시위를 방해한 박주범 대령을 절도죄 등의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과 용산경찰서에서 고발했다.

남동우 기자

불교유아교육 워크숍

19일 동국대 경주캠퍼스

불교유아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워크숍이 개최된다.

동국대 경주캠퍼스 부속유치원에서 개최되는 ‘제2회 불교유아교육을 위한 원장·교사 워크숍’은 ‘불교의 생명존중사상에 입각한 생태유아

육과 불교문화의 예술문화적 접근’을 주제로 19일부터 20일까지 열린다.

이번 워크숍에는 동국대 이수경교수와 경인대 이주연교수의 ‘유아를 위한 창의적 불교 미술문화 감상 및 창작 워크숍’ 중앙대 이부미교수의 ‘불교생태유아교육의 이론과 실제’ 등 불교 아동교육을 위한 다양한 강좌가 진행된다.

박원규 기자

추위원의 우주상보시론



남동우 (취재1부 기자)



진정한 불자란 무엇일까? 여러 가지 대답이 쏟아져 나올 것이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관통하는 진리 하나는 ‘불교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불교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닐까?

민주당 연동회 회원인 추미애 의원은 전국승가학인연합(의장 각산) 주최로 11~12일 중앙승가대학에서 열린 불교학술회에서 ‘불교의 사회참여’ 토론 주제 발표자로 나섰다.

대회에서 추 의원은 대북식량지

원과 관련 “북한이 호전적인 태도를 버리지 않고 있는데 일방적으로 퍼주기만 해야 하나냐”, “남한에서 준 쌀이라는 것을 북한 주민이 모르게 북한에 쌀을 보내야 하나냐” 등 일부 정치권과 국민 사이에 퍼져 있는 감정적 대응 분위기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추 의원은 특히 “우리는 무언가 베풀면서 자칫 베푸는 자로서의 우월감에 빠질 수 있다. 그것은 진정한 자비가 되지 못한다. 베푸는 행위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

이 깔려 있다면 자기만족에 그칠뿐이지 진정한 이타행은 되지 못한다”고 역설했다. 이른바 추 의원의 햇볕정책 관련 ‘무주상보시론’이다.

햇볕정책에 관해선 이론(異論)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불자로서 불교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불교적인 발언과 행동을 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언행이 이뤄질때 ‘불국토 실현’은 내일의 꿈이 아닐 것이다.



민중불교운동연합이하 민불련(출신 운동가들이 마지막 빨치산인 정순덕(71) 할머니를 돕고 있어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서동석 전 민불련 의장과 이남재 월곡청소년센터 관장(전 민불련 기획국장), 진철승 전 민불련 문화부 차장 등은 4년 동안 인천 나사렛 한방병원에서 투병중인 정 할머니의 아와 내들이 돕고 있다. 또 병원이 아닌 살림집을 마련해 여생을 편안하

“좋은구경 고맙습니다”

마지막 빨치산 할머니 민불련서 내들이 주선

게 모실 생각도 가지고 있다. 한국전쟁중 총상으로 한쪽 다리를 잃어 혼자서는 거동이 불가능한 정 할머니는 4년 전 갑자기 찾아온 중풍으로 더욱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

9일 천안의 한 가시오가까 농장을 방문(사진한 정 할머니는 서 전 의장과 이 관장에게 “좋은 구경 시켜줘서 고맙습니다”를 연발했다. 천안=남동우 기자

자비를 실천하는 나눔의 개인 콜택시입니다.
수익금의 일부는 불우 이웃과 장애 복지 단체에 쓰여집니다.

수도권 미터요금 운행 지역
인천국제공항, 일산, 김포, 부천, 안양, 평촌, 군포, 산본, 성남, 분당, 수지, 구성, 하남, 의정부, 남양주 일부

서울 운불련 나눔 콜택시
1588-5532

불교환경워크숍 자료집
‘불교환경의제 21’서 발행

5월 23일부터 24일까지 충남 아산 도고 글로리콘도에서 열린 불교환경 워크숍 결과보고 자료집이 나왔다. 불교환경의제21 추진위원회 주최로 열린 워크숍 자료집은 강연 및 발표와 분과토론 결과보고, 워크숍 결

의문 등으로 구성됐다. 조계종 사회부장 미산스님은 발간사를 통해 “북한산 관동도로 문제와 천성산·금정산 경부고속철도의 문제와 같은 환경안전 문제에 대해서 일시적인 대응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을 논의하고 생명·평화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도록 교육하고 계몽하기 위해 발간했다”고 밝혔다. 남동우 기자

시장 제일기도도량 도솔천 내원궁 도솔암

1029일 천도재

도솔암은 최근 극락보전을 중창 낙성하고 아미타부처님을 개금해드리는 한편 후불명화를 새로 모셨습니다. 이 뜻깊은 불사 회향을 선망부모·유주·무주 고향과 함께 하고자 **1029일 동안 49재를 21번** 지내는 대규모 천도재를 올리고 있습니다. 결국 모든 동참 불자께서는 천도제사를 매주 올리게 되며 기도회향때까지 **총 147회의 제사**를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천년을 지켜온 마애불(보물 제1200호)과 지장보살(보물 제280호)이 보살피시는 도솔암에서 다시 천년을 이어갈 가람으로 중창하고 열리는 ‘1029일 천도재’에 많은 불자들께서 동참하시어 뜻하신바 소망을 성취하고 모든 영가의 극락향생과 성불의 인연을 맺으시길 기원합니다.

첫 번째 49재 안내

제 1재	6월 29일	제 2재	7월 6일	제 3재	7월 13일
제 4재	7월 20일	제 5재	7월 27일	제 6재	8월 3일

첫 번째 49재 - 8월10일 용우사 주지 정택근스님 영가법문

- ▶ **매주 토요일 오후 10시 : 철야 지장기도**
- ▶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30분 : 천도제사 (영가천도 법회 총 147회)**

■ **교통안내**

-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조계사암 출발 / ● 매주 일요일 오전 6시30분 조계사암 출발**

도솔암 전화 063)561-0075 / 팩스 063)561-4080
서울 017-221-8778(이회장) 02)821-3242,4689(진여회)
부산 011-855-8741(부산고속관광 박길하), 016-842-4272(유정희) 대 전 011-409-2702(동선관광 이현호)

조계종제24고구본사
선운사 도솔암 주지 지정 합장

◇ 도솔암 지장보살(보물 제280호)